

<2018년 5월 9일 수요일말씀>

행할 때 잘 행하여라

본 문 잠언 4장 25~2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 말씀은 ‘행할 때 잘 행하여라.’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사람들은 ‘희망과 소망’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삽니다.

<희망과 소망>은 ‘때’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.

<자기의 희망>이 오고,

<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주시는 희망>이 옵니다.

- ◆ 바라면, 그 희망이 이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.

그런데 준비하고, 예비하고, 때가 와야 ‘희망’이 오는 것입니다.

<땅>으로도 준비하고 예비하고,

<하늘>로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얻게 됩니다.

- ◆ 그런데 인간의 폐단은,

준비하고 예비는 했는데 실제로 그날이 왔을 때는 잘 모르고

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

◆ <행할 때> 잘 행해야 됩니다.

제대로 행하려면, **바로 행해야** 됩니다.

제대로 행하려면, **간절한 마음이 있어야** 됩니다.

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.

◆ 항상 <행할 때>가 문제입니다.

<행할 때> 잘못 행해 놓으면,

어떤 것은 일생 동안, 어떤 것은 다시 제대로 할 때까지
행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◆ <행할 때>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.

또한 주님이 필요하고, 하나님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.

◆ 행하는 데 있어서,

<쓰여지는 도구>가 충분히 있어야 제대로 행하게 됩니다.

그리고 **<거기 해당되는 여건>**이 갖춰져야 됩니다.

◆ <스스로 행할 때>는

자기 정신, 생각, 지혜 등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.

행할 때마다 충분히 알고 행하기입니다.

특히 섭리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
하나님을 확실히 알고, 충분히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.

◆ <주와 함께 행할 때>는

먼저 무슨 말씀인지, 제대로 확실히 전달받고 행해야 됩니다.

흔히 보면 <주>가 무슨 일을 시키면 알았다고 하고,
가서 행할 때는 다르게 행합니다.

이는 ‘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행한 일’입니다.

- ◆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,
그것을 ‘작품’으로 해야 합니다.

그러면 훨씬 더 아름답고, 멋있고,
평생 아름다운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자기를 만들 때>도 ‘작품’으로 만들어야
가치 있고, 아름답고, 신비합니다.

- ◆ 요즘은 주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
정~말 수준을 높이고, 진정 100% 주와 같이 해야 됩니다.

- ◆ 지금은 늘 주와 같이 먹고 마시며 일을 합니다.

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실제 일들을 하면서,
그것들을 ‘눈으로 보는 시대’입니다.

<가상적인 시대>가 아니고, <실제적인 시대>입니다.

그러므로 주 앞에 정~말 잘 행해야 됩니다.
주의 마음을 모르고 행하면 안 됩니다.

- ◆ 주와 같이 일하고,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,
성령님의 감동대로 일하는 것을 원했지만,
사람들은 목숨 걸고 진짜 멋있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.
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보고 일반적인 일로 행합니다.
<작품>으로 하면 아름답고 멋있는데,

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모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늘 확인하며 안 하니,
나중에 보면 전부 착오가 나 있는 것입니다.

◆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

더 아름답게, 더 멋있게, 더 웅장하게, 더 신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

그러려면 더 애간장을 태우고, 더 힘을 들어 수고하면서 해야 됩니다.

그렇게 하지 않으면, 결단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.

◆ <선생이 시키는 일>은

가장 어려운 일도 아니고,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.

그러나 배우고 터득하면,

- 쉽고 재밌고 희망적입니다.

-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마음같이 기쁘고 희망차고 행복합니다.

◆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, 늘 구상하시고 행하십니다.

하나님은 우리가 ‘**하나님의 구상**’으로 행하는지,

그러지 않고 ‘**자기 의향**’으로 행하는지 늘 보십니다.

◆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, 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빠르니,

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셔도 같이 의논하지 않고 행합니다.

<하나님의 마음>에 들게 해야 됩니다!

그러려면, 하나님과 마음이 일체 되고

성령의 감동을 받으며,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.

◆ 그냥 하면,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.

모든 일을 ‘마음에 들게 하는 것’ 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.

마치 <국가 대표 선수>가

연단과 수고의 대가로 자기 기술을 발휘해서 메달을 따오는 것과 같이
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그만큼 한 일이 이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지요? (잠시 쉬었다가)

“행할 때 잘 행하여라.

제대로 잘 행하여라.

제대로 바로 잘 행하여라.”

→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.

- ◆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.

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하나,
<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 것>은 잘 모릅니다.

- ◆ <기도>도 하고, <각양각색으로 닦을 것>을 닦아야 됩니다.

불을 차는 것도, 배구를 하는 것도, 탁구를 치는 것도
모두 **할 줄 알아야**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**할 줄 모르면**, 못 합니다.

할 줄 모르면, 못 하는 선(線)에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.

- ◆ **할 줄 알면**, 아는 세계에서 일도 하고, 공적을 세우고
하나님께 얻을 것도 얻고 살 수 있습니다.

* 잠시 쉰다.

◆ 운동선수들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‘**실제**’ 게임을 하듯이
섭리사도 지금! ‘**실제**’ 하나님 앞에서
하나님의 구상대로 일을 하며 실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.

◆ 성자는 늘 말씀하시기를,
“**사물을 볼 때는 꿰뚫어 보아라.**
소홀히 보지 말고 완전히 보아라.” 하셨습니다.

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!

그리고 지금! ‘실제’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때에는,

- 완전히 행해야 됩니다.
-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.
- 재미와 즐거움으로 행해야 됩니다.
-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, 행해야 됩니다.

◆ <일을 할 때>도 ‘일’ 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일을 하면서 노래하고, 기뻐 찬양하고, 화동하면서
<두 가지 일>을 할 수 있습니다.

<일>만 하면,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.

<일>은 ‘**복**’ 이요, ‘**낙**’ 입니다.

<재미>와 <즐거움>과 <기쁨>으로 행해야 됩니다.

◆ 또 <일을 하는 시간>은 ‘**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시간**’ 입니다.

<일>을 하면서 깨닫고, 생각하고,
많은 만물들을 직접 꿰뚫어 보고,
자신의 신흘골수를 쫓개 볼 수 있습니다.

* 잠시 쉰다.

◆ 월명동을 보면, ‘크고 아름다운 돌’ 이 있습니다.

여기저기 띄엄띄엄 있습니다.

일을 해서 돌을 세워 놓으니,

볼 때마다 “좋다. 멋있다.” 하며 씁니다.

◆ 지금 이 말씀을 쓰는 중에 환상으로 아주 멋진 돌이 보였습니다.

‘이런 돌이 어디 있나?’ 하고 생각해 봤지만,

어디서 봤는지 본 기억이 안 났습니다.

그래서 ‘다른 돌을 본 것인가?’ 하고 보니,

<성자바위 옆에 있는 납작한 돌>을 본 것이었습니다.

그 돌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습니다.

그런데 왜 이 돌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을까요?

(잠시 쉬었다가)

<영적>으로 봤기 때문입니다.

<환상으로 볼 때>는 비몽사몽간에 봐서

‘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돌이 있었나? 사다 봐야지.’ 했는데,

이미 사다가 성자바위 옆에 놓은 것이었습니다.

<영적>으로 보니,

아름답게 빛이 나고, 반질반질하고, 너무 멋있었습니다.

<영상 자료 1>

이 돌은 성자바위 옆에 있는 ‘성령바위’ 입니다.

선생이 ‘영적’으로 본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.

◆ 이같이 〈사람〉도 영적으로 봐야

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고 웅장합니다.

〈영의 세계〉도 그 단계까지 봐야

기쁘고 즐겁고 심령의 낙을 누리며 감사, 감격하며 좋아하게 됩니다.

육적으로 보면, 보통으로 보입니다.

육적으로 봐도 신령하게 보는 것이 있지만,
그렇게 보려면 아주 꿰뚫어 보고 사물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.

* 잠시 쉰다.

◆ 월명동에는 ‘미술관’이 있습니다.

이곳의 그림은 수시로 바뀝니다.

그런데 ‘이 그림의 근본’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.

◆ 〈그림을 볼 때〉 **근본을 모르고 보면,**

재미도 없고, 자기 취향으로 보고 끝납니다.

근본을 알고 보면, 뜻을 아니 상상도 못 하는 지식을 얻게 되고
그림에 조예가 깊은 자가 됩니다.

이제 사람이 모이면, 하나씩 설명해 줄 것입니다.

◆ 오늘 ‘그림 하나’에 대해 설명해 줄까요? (잠시 쉬었다가)

〈월명동 미술관〉에는

코끼리가 코로 큰 뱀의 목을 감고 아주 여유 있게 가는 모습의 그림
이 있습니다.

월명동에 오면, 이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.

<영상 자료 2>

◆ 이 그림을 보면,

<코끼리>가 ‘뱀의 목’ 만 자기 코로 한번 쉹쉹 감아서 꼭 조이고,
발로는 밟지 않고 갑니다.

- ▶ <코끼리>는 ‘왕’ 이요, ‘선생’ 을 상징한 것입니다.
‘주’ 를 상징한 것입니다.

이는 ‘형이상학적’ 으로 본 것입니다.

- ▶ 그리고 코끼리 뿔은 ‘2개’ 가 나 있는데
<우측 상아>는 높게 나 있고, <좌측 상아>는 조금 낮습니다.
<좌우 크기>는 비슷합니다.

<우측 상아>는 ‘영적인 세계’ 를,
<좌측 상아>는 ‘육적인 세계’ 를 의미합니다.

<영적인 세계>는 차원이 높으니 더 높게 그렸고,
또, <영의 세계>와 <육의 세계>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
<두 개의 상아의 크기>를 같게 그렸습니다.

- ▶ <뺨, 상아>는 권세요, 세력이요, 능력이요,
사명이요, 무기요, 각종의 힘입니다.

- ▶ 그리고 <코끼리 코>로 ‘뱀’ 을 한번 힘 있게 감았습니다.
<발>은 뱀을 밟지 않고 여유 있게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
<발>로 뱀을 밟지 않은 것은
‘<코>만 가지고도 충분하다.

〈코의 능력〉만 가지고도 충분하다.’ 는 의미입니다.

〈목〉을 조이기만 하면,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
이미 끝난 것입니다.

▶ 그리고 〈발〉을 사용하는 것은 각종 의미가 있습니다.

그중에 ‘〈뱀〉으로 하지 말아라.

〈또 다른 방법〉으로 하지 말아라.’ 함입니다.

▶ 〈코〉는 ‘호흡’ 입니다.

〈호흡〉은 ‘기도’ 입니다.

이는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.

◆ 선생이 세상을 위해, 시대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,
그냥 나가면 안 되기에 기도 작전을 했습니다.

〈기도〉가 마치 ‘코끼리의 코’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.

〈기도〉로 사탄을 떨하고, 악인도 떨하고, 악도 떨하고
〈기도〉로 나를 연단시키고, 만들고, 깨닫게 했습니다.

◆ 그때는 나에게 대항하고,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
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

고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.

〈기도〉는 선생에게

‘코끼리가 코로 큰 뱀의 목을 감은 입장’ 과 같았습니다.

그러니 늘 성자도, 성령님도

“기도해라.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.” 하시며
각종 문제를 기도로 풀어 주셨습니다.

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졌을 때도 ‘기도’로 해결했습니다.

- ◆ 그때 섭리사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,
선생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 정도였습니다.

<알고 기도하는 것>과 <모르고 기도하는 것>은
애절함도, 간절함도 다릅니다.

- ◆ “기도해라.” 하면, 꼭 기도해야 합니다.

<기도>를 안 하면, ‘기도의 시험’에 듭니다.

- ◆ 특히 <새벽>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.

생활 속에서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
새벽에 기도함으로 신령함을 쌓고,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.

그리고 <낮>에도, <밤>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.

- ◆ <기도>는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대화’입니다.

<기도>는 ‘생명’ 이요, ‘능력’ 입니다.
<기도>로 병도 치료됩니다.

<기도>하면,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

- ◆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,

“원하는 것은 들어준다. 그러나 책임을 갖고 행해야 한다.”

했습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

행할 때 잘 행하여라.

<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구상>으로 행하여라.

그리하면 보는 자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본다.

자기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.

멋있게 개발하고, 아름답고 신비하게 자기를 만들어라.

또 하나는, 주가 실제로 뛰고 달리니 행할 때 잘해야 한다.

정말로 행할 때 잘해야 된다.

행할 때 작품으로 멋있게 행하자.

- ◆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.

<영상 자료 3>

- ◆ <성지 땅 월명동>도

하나님의 구상대로,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,
아름답게 멋있게 됐습니다.

언제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, 기쁘고 즐겁습니다.

항상 <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상과 실천>입니다.

- ◆ 지금은 <하나님께서 월명동에 해 놓으신 것>을
각종으로 알고 꾸미고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.

- ◆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하심과

그 구상과 인자하신 사랑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